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믿음이 온전해 질 때

(약 2:14-26)

When Our Faith is Made Complete

(James 2:14-26)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믿음에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약 2:15-16).

논리에 맞는 말은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했다는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이는 얼핏 보면 상충된 말씀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서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주후 5세기가 지나서야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에는 그 어떤 상충된 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란 주제로, 우리가 얻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 라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행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면을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면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의 동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만의 신앙도, 감정만의 신앙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가 보거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22-23).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동하는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영적 거장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등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세상을 넘어서 이기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ames the Apostle teaches us the complete core of faith through the text

While people say that they have faith, if they do not have deeds by faith, their faith will not have any beneficial effect on their life. And then,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faith but does not have any deeds, his faith will have no salvation (James 2:15-16).

To those who say the perfect word logically but do not help practically, James, the Apostle says,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James 2:17).

If we do not have any deeds in our faith, our faith by itself is dead. Faith and deed always have to work together. And then only, that can become a living and vigorous faith.

The Apostle, Paul emphasizes "salvation gained by faith" and the Apostle, James clearly says "not only by faith", which, at first glance, seems to be at odds. In this reason, in the process chosen rightly as 66 volumes of the Bible, the letter of James was a much disputed letter. After the year of AD 5, the letter of James was rightly compiled in the Bible and has been studied, since then. However, the messages of the Apostle Paul and James do not have any odds. The Apostle Paul with the subject of "only faith", emphasizes that there is no meritorious deed in salvation that we received but only God's grace, while, the Apostle James says that if the faith is the real faith, then deeds cannot help following naturally.

In a word, just as a coin has two sides, the Apostle Paul emphasizes one side, and the Apostle James the other side, finally they explain one coin. The faith means the whole personality. It is not only faith of knowledge and emotion. There should be volition, decision, and obedience in faith. Lots of people's faith stay at knowledge and emotion in many cases. Knowledge and emotion are important but even more important than that is a life of obe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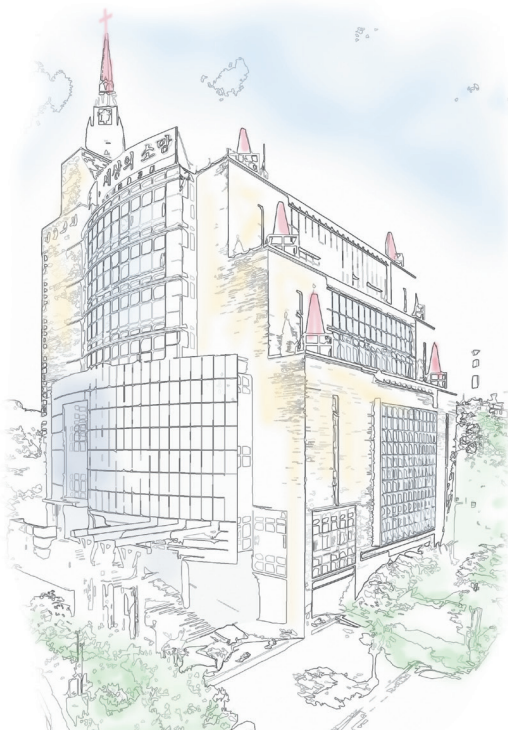
"You see that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and his faith was made complete by what he did.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James 2:22-23).

The Apostle James says that faith works together with actions. That's why real faith bears actions. Faith and action have to be two sides of the same coin.

My beloved Christians,
If there is no deed followed by faith, it is unbelievable. There must always be actions that we have deeds in a real vigorous faith.

There are spiritual celebrities' names written in Hebrews 11: Noah, Abraham, Joseph, Moses, David, and Samuel, etc.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heroes of faith? They act with their faith.

By believing and obeying that our Almighty God, creator loves us as much as He loves the cros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blessed people enough to overcome this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민 28:26)

오늘은 '맥추감사절'

I · II · III 부 예배-성찬식 / 맥추감사헌금 드리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볼 때 감사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2016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7월 9일(토) 디아스포라부 · 사랑부 : 서울교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2(금) - 23(토)	서울교회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이 쓰옥~ 알콩달콩 사이좋게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7/28(목) - 30(토)	아가페타운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중등부			하나님의 그루터기 (사 61:3)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내일을 향한 지혜 (잠 16:9)	박노철 목사 천세종 목사
청년1·2부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II (벧 2:5)	박노철 목사 박병만 목사 (높은뜻정의교회 청년부총괄) 서준환 목사 장재원 목사 정대은 목사
사랑부	7/9(토) - 10(주일)	아가페타운-서울교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고전 16:13)	박노철 목사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7/21(목) - 23(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와 연합 (시 133:1)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부	7/9(토)	서울교회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박노철 목사 유문건 목사
영어예배부	8/26(금) - 27(토)	아가페타운	Living a Genuine Christian Life	박노철 목사 김삼열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김다니엘 목사



장년부 수료자

강낙훈 강승웅 공민호 김가순 김미성1 김양경 김정희10 김태욱 노재현 노종렬 문수자 문영수 박본옥 박정수 박철용 배은희 배재송 백경애 백승정 서영희 서은석 송민정 송희경 여현주 윤희준 이상섭 이신애 이우호 이윤진 이진리 이진숙 이학주 임종태 장영순 정미자 정은희 차영도 최민자 허훈 허희승 홍일성

2016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7월 13일(수) 수여식: 8월 7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6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을 7월 13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재정상태확인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와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인 - 노문환 외 17인

**피신청인 -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

다음은 '교회와 신앙(6월 2일자)'에 『[단독] 이종윤목사 설교와 저서 '보이스' 표절 논란』이라는 제하의 오도된 기사에 관하여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교회와 신앙>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내온 조정합의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 조정 합의서 >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016서울조정857-858(정정, 손해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 다 음 -

1. 보도문

가. 제목 : 이종윤 목사 설교 및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관련 정정 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2일 "이종윤 목사 설교와 저서... 보이스 표절 논란"이라는 제목과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은 오히려 박노철 담임 목사 해임추진"이라는 부제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빌미로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이 오히려 박노철 담임목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종윤 목사의 표절 여부

는 아직 규명 중이며 표절 문제를 이유로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이 박노철 담임목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6. 7. 1.)부터 2016. 7. 8.(금) 18:00 까지의 기간 중(단, 토, 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48시간 동안 <교회와 신앙> 홈페이지(http://www.amennews.com/) <교계·선교> 섹션 기사 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경계선을 넣고 이어 게재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교회와 신앙> 2016. 6.2자, <교계·선교> 섹션, 『[단독] 이종윤 목사 설교와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제하의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0)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조정 합의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016서울조정857-858(정정, 손해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보도문
 - 가. 제목 : "이종윤 목사 설교 및 저서...보이스 표절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2일 "이종윤 목사 설교와 저서...보이스 표절논란"이라는 제목과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은 오히려 박노철 담임 목사 해임추진"이라는 부제로 서울교회 일부 목사가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빌미로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이 오히려 박노철 담임목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종윤 목사의 표절 여부는 아직 규명 중이며, 표절 문제를 이유로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이 박노철 담임목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6. 7. 1.)부터 2016. 7. 8.(금) 18:00까지의 기간 중(단, 토, 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48시간 동안 <교회와 신앙> 홈페이지(http://www.amennews.com/) <교계·선교>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DB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경계선을 넣고 이어 게재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교회와 신앙> 2016. 6. 2. 자, <교계·선교> 섹션, 『[단독] 이종윤 목사 설교와 저서... '보이스' 표절 논란』 제하의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0)
3.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맥추감사절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오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

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편집부)

2016 비전트립

방글라데시로 하나님의 말씀,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감동현 성도 (2016비전트립 총무)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한 없이 부족한 저에게 총무라는 직책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섬기겠습니다.

사실 서울교회 비전트립에 대한 저의 생각은 교회 사무국에 가끔 드나들며 또는 매년 순례자에 실린 비전트립 단원들의 띠 흘리는 사진들을 보는 그 순간에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초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상사들과 동료들, 새로운 일터에 적응하며 힘들어 하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퇴근해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차에, 어머니께서 '너도 이번에 비전트립 한번 가보지 않을까?' 라고 저한테 권유하셨고, 저는 즉각적으로 '바쁘다..' 라는 핑계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 일같이 생각하며 지나치려던 중 머릿속에 '과연 내가 무엇이 그렇게 바쁘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조원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조심스럽게 '제가 비전트립에 가고싶는데, 선교할 만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며 여쭙았습니다. 목사님은 가기 전에 10주 훈련을 하니 관장을 거라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였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주님께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모난 곳을 다듬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녀올때까지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된 비전트립팀.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행하는 선교. 시원사원 한 단장님의 지도아래 총무라는 직책을 맡게 되고, 같은 교회 내에서조차 아예 몰랐거나, 얼굴만 어렵듯이 알던 집사님, 또래의 청년단원들과 훈련 받으며 해외단기선교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방글라데시는 매우 가난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 땅에서 과연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난무하고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사탕 한 조각에 구름 떼갈이 몰려드는 내일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 팀원은 세상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룩한 무력감을 가지고 철저히 주님이 끼시는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우리들이 그 곳에서 태어났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주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로 어찌면 영영 구원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고,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며,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역시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은 감사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6 비전트립팀은 30명이지만 선교는 서울교회 전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희라고 지칭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선교헌금으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들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님 각각의 위치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파송되어 수년째 사역중이신 선교사님들을 도와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일손을 보태실 것이라 믿고 전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과 같이 먼저 다녀오신 선대 서울교회 비전트립팀에 버금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지에서 의료사역과 문화사역 그리고 지원사역을 서울교회 대표로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대학생 때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서울교회 비전트립팀 단원들과 하나되어 열심히 준비하여 방글라데시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2016 여름 수련회 - 사랑부

소홀히 할 수 없는 예배와 말씀 교육!



박광옥 집사 (사랑부 부장)

저희 사랑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호산나대학의 방학전에 수련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학생들의 순수한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며,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특별활동 등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지만 오로지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모두가 힘을 내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개개인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사랑부 선생님들의 전통이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학생들 더욱 사랑해주세요.



2016 여름 수련회 - 디아스포라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조영금 성도 (디아스포라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주시고 2016년 7월 9일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저는 디아스포라부 조영금(단국대학교 회계학전공)입니다. 저는 2013년 친구의 전도로 서울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의 첫 인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당시 저의 마음에 와 닿았고, 디아스포라부에서도 목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환영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따뜻하게 손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저는 서울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게 되었고 한국생활도 잘

적응하여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 졸업학기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는 고향이 북한인 탈북대학생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에 디아스포라부 선생님들은 때로는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매해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올해 디아스포라부 여름 수련회는 7월 9일 토요일 서울교회 9층에서 열립니다. 기도와 찬양, 재미있는 통일 퀴즈 등 풍성한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하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항상 디아스포라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어예배부 임시 설교 목회자 초빙

영어예배부의 주일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하는 김 다니엘 목사가 아래와 같이 해외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를 대체할 목사를 모시기로 하였다.

- 김 다니엘 목사 해외 여행 일정과 목적
 - 2016년 7월 10일 주간 및 17일 주간(2주간) - 미국 L.A. 지역 선교사역 지원 협의
 - 2016년 8월 7일 주간 및 14일 주간(2주간) - 인도네시아 전국 선교사 훈련 세미나 강사
- 초빙 목사(주일 설교 담당)
 - 7/10 주일 : Jamie Kim 박사 - Reah International Executive Director
 - 7/17, 8/7, 8/14 주일 : 김삼열목사 -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

등 정

■ 박정선 은퇴장로 (전 단국대 음대학장)는 7월6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소치 (Sochi)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합창경연대회 (9th World Choir Games in Sochi)에 국제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4일 출국한다.

■ 독남: 11교구 최근우 성도 고민정 성도

■ 주일식당봉사 : 에스더 전도회(7.3) 마리아 전도회(7.10)

■ 금주의 식사 제공 : 고기성 성도 박분옥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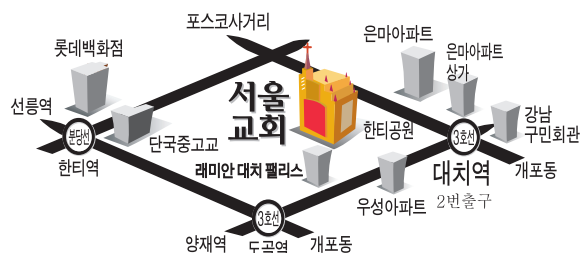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 7월9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2016년 전도위원회 하계 국내전도가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